

옛 사람의 멋 '도자기'... 풍류의 또 다른 공간 속으로

'회경루방회도', '화개현구장도', '산수 무늬 팔각 연적'.

이들 세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누정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구현된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 조상들은 누정과 도자기라는 우수한 문화를 매개로 풍류문화를 즐겼다. 도자기와 풍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고려대 방병선 교수는 최근 국립광주박물관이 마련한 '조선 후기 백자와 문인 취향' 강연에서 도자기와 당대 사람들의 철학, 풍류를 들려준 바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이 도자기와 풍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특별전을 연다. 오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도자기, 풍류를 품다'가 그것.

이애령 관장은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조선의 공간과 도자기' 학술대회에서 도자기가 당시 누정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지역 원립과 연계해 조명했다"며 "이번 특별전은 학술대회 성과를 토대로 공간 속 도자기의 쓰임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물 3점과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2점 등 모두 180건 19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23년 광주공원에 증정한 '회경루'의 중요한 원형 자료인 '회경루방회도' (동

'도자기, 풍류를 품다'

21일~9월22일 국립광주박물관
누각·소쇄원·시·도자기 등 4부
보물 '화개현구장도' 등 196점

국대박물관)도 볼 수 있다. 작품은 1546년 증광시 문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20년 만인 1567년 회경루에서 재회한 장면을 담았다. 당시 문인 신숙주(1417~1475)는 '넓고 훌륭한 회경루는 동방 제일'이라고 평했다.

조선 중기 화가인 이정(1581~1653)이 그린 '화개현구장도' (花開縣開田圖)도 지역에 첫 선을 보인다. 조선 전기 문신인 정여창(1450~1504)의 별장으로 당대 문인들의 이상적인 은거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산수 무늬 팔각 연적'은 중국 후난성 동팅호 주변의 8가지 풍광을 무늬로 표현했다. 도자기 흰 면을 풍류 공간으로 삼아 이상적 세계를 그린 점이 눈에 띈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풍류의 공간, 누각과 정자'는 정자 이야기를 다룬다. 무등산 일대 누정은 선비문화, 가사문화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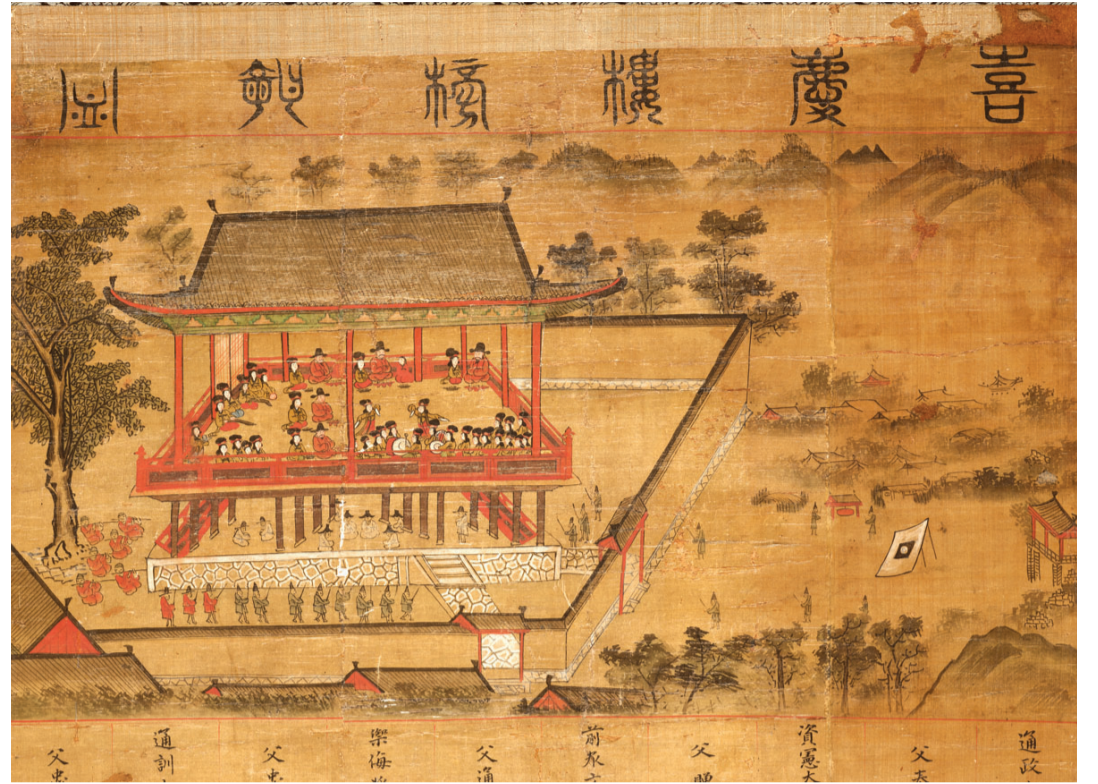


'화개현구장도'

한 학문 연구와 교유의 장이었다. 문헌과 자료 등을 근거로 광주-전남 일대 누각과 정자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본다.

2부 '최고의 민간 정원 소쇄원 그리고 도자기'는 소쇄원 광풍각(光風閣)의 평면도를 바탕으로 도자기와 있던 내부 공간을 재해석했다. 관람객은 공간 각적 공간을 매개로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시를 감상하며 풍류를 느껴보는 공간도 있다. 3



'회경루방회도'

부 '풍류를 즐긴 자리의 도자기'는 도자기에 담긴 흥취 가득한 시를 감상하며 풍류를 느껴보는 공간이다. 특히 지역의 누정 유적 7곳의 도자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 4부 '풍류를 품은 도자기'는 문인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도자기가 주인공이다. 조선시대 완상물로서 도자기가 '풍류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소개된다.

김희정 학예사는 "이번 전시에서는 풍류의 구체적인 공간인 누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며 "바쁜 일상에서 선조들이 지향했던 풍류문화를 한번쯤 사유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6일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자와 누정을 모티브로 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수 무늬 팔각 연적'

베트남전 두 군인 '그들만의 전쟁'

극단 연우랑, 5~7일 예술극장 통

우리나라에는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고엽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거나 숨진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머나먼 타국에서 일어난 베트남전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 같다.

월남파병의 현주소를 묻는 연극이 상연을 앞두고 있다. 극단 연우랑(대표 이현기)이 오는 5~7일(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7시) 예술극장 통에서 펼치는 '그들만의 전쟁'이 바로 그것.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장씨와 김씨, 두 세대 군인의 대화를 통해 극은 시작된다. 참전 당시 시체처리 작업을 했던 장씨와 민간인 살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김씨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전쟁의 참상

을 떠올린다.

귀국 후 장씨는 결혼도 하고 평범한 삶을 영위해 가는 듯 보였으나, 고엽제의 후유증을 피하지 못했다. 끔찍한 피부병에 반신불수가 된 이들은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다 목숨을 끊었다. 아내 또한 삶을 비판하고 기충한 딸을 찾아 집을 나선다.

김씨 또한 정신적 고통과 환경, 환각에 시달리며 수전증, 대인공포증을 앓는다. 두 사람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서로에게 기대며 악몽 같은 과거를 회상하고, 함께 살 것을 다짐한다.

극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월남전 파병 용사들의 현실을 조점화한다. 유전적 증상으로 인해 2세대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

을 꼬집으며, 베트남 전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듯하다.

장씨 역에 오설균, 김씨 역에 박영국 배우가 출연한다. 중대장 역은 김경록, 경수 역은 송민중 배우가 맡았으며 경미(이슬), 순덕(김진희) 등이 출연한다. 유진원 원작.

이현기 대표는 "이번 연극을 통해 월남전 파병 전사들의 피해배진 삶을 위로하고 배상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었다"며 "타향에서 목숨 바쳐 싸우다 죽거나 불구가 된 우리 선대의 이야기를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3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소프라노 윤한나가 '라 트라비아타'를 노래하는 장면. <DIMO 제공>

인생의 비탄 넘어 환희를 노래하다

윤한나 독창회 'Life&Love', 16일 광주예술의전당

시대를 어우르는 레퍼토리, 인생의 비탄을 넘어 환희를 노래하는 공연.

DIMO가 소프라노 윤한나 독창회 'Life&Love'를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피아노, 첼로 협연과 더불어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만도바 아카데미를 수료한 윤한나는 북텍사스 주립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광주신대 음악학부 조교수이며 GIC 클라비레 예술감독, 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 소프라노의 이번 독창회는 4년 만.

공연은 하이든 '거칠던 들이 변하여 푸른 초원 되었네'로 막을 연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1부 곡으로, 장엄한 천지 개벽의 순간을 악곡으로 형상화했다. 이어 벤자민 브리튼의 '이 섬에서 Op.11', 빌라 로보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칸

틸레나 아리아'도 들을 수 있다.

'사랑'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는 한용운과 서정주의 시에 김주원이 각각 곡을 붙인 작품들이다. 이 밖에 비제 '오래된 노래', '네 마음을 열어서'를 비롯해 벨리니 '나 여기 행복의 웃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푸치니 '도레타의 꿈'도 레퍼토리에 있다.

협연자 피아니스트 김민준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및 오스트리아 국립음대 등을 졸업했다. 현재 광주예고, 조선대 등에 출강 중. 아울러 조선대 음악교육과,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한 첼리스트 이후성은 전남대 겸임교수 및 조선대, 광주예고 등에 출강했다.

윤한나는 "삶과 사랑에 대해 다채로운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곡들로 이번 연주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독창회를 통해 시대를 어우르는 감동 있는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전석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환경·언어 초월... '제1회 광주국제청년예술축제 지바운드' 전 성료

국내외 32명 청년예술가 참여
설치예술·미디어아트 등 선보여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국내외 청년예술가들이 선보였던 '제1회 광주국제청년예술축제 지바운드' 전이 최근 성료됐다.

케이아트문화예술교류가 주최·주관한 이번 전시는 동구 예술의 거리 광주미술관, 갤러리현, 미로센타에서 펼쳐졌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전시는 국내외 32명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 일주일간 설치예술,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와 회화, 조형 작업 등을 선보였다.

지바운드 운영위 관계자는 "광주예술의거리 일대에서 펼쳐진 'G바운드'는 청년예술축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물리적, 환경적, 언어적 경계를 초월해 국제청년예술가들의 이야기와 아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는 국외 5개국(미국·스페인·중국·인도·네덜란드)작가의 작품 외에도 팀으로 참여한 클로인과 GOLD1&HEAG의 작업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의 답론과 인문적 관점이 투영된 연구 발표도 진행됐다. 중국 송양문화예술회



개막식 모습.

<지바운드 운영위 제공>

사 송양 대표와 지바운드의 총감독 지아정정의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치료 효과', 예술공간진 문화영 대표의 '넷지 프로젝트와 청년 예술 비평'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제1회 광주국제청년예술축제 지바운드 개막식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주광주 중국총영사, ACC, 광주동구청, 518민주화운동기

록관 등 기관의 응원과 격려도 있었다.

한편 지바운드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 1회 축제를 계기로 2회는 올해보다 더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지바운드가 지역과 국적을 넘은 청년예술축제이자 국제적 무대로 성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광주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0원 인종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로 2024년 연간 지원금(13만원)을 모두 소진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을 만든 후, 이를 증명할 잔액 사진과 이름, 연락처, 카드 앞면 사진을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잔액 사진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잔액 '0원' 영수증을 받아

사진찍기, 카드 승인 문자에 남은 잔액을 캡처하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잔액 캡처하기,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카드사용 및 잔액 확인 캡처하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BBQ 황금음 리브치킨+콜라 1.25L, 세트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5일(월) 블로그 및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에 안내 후 개별 문자로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